

2022

학년도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수시모집 |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 정시모집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미래의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여러분의 서울대 생활에서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탐구를 즐겨 주십시오. 탐구를 즐기기 위해서는 탐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강의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토론의 장에서 매번 발언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책 속에 파묻히고, 친구와 밤을 새워 토론해 보십시오. 탐구에는 이론과 실천이 모두 중요하므로, 교내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잡한 세상을 체험해 보십시오.

둘째, 여러분 자신을 탐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경험들이 즐겁고 힘들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탐구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 자신을 이해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앎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좋아하는 진정한 벗들을 자연스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고 싶은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들을 위해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개인들의 노력이 존중 받지 못하고 원하는 삶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도움 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존중하고 돕는, 좋은 가치들을 세상에 알리고 실천하며 공동체와 함께 발전하는, 참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사실 제일 중요한 당부는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갖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계획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지나친 경쟁으로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일상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자고, 매일 여가를 마련하여 즐거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총장 오 세 정

차례

I.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06
	•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07
II.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09
	•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09
	•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10
III.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방법	• 서류평가 안내	12
	• 면접 안내	19
IV.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29
	•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35
	• 입학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37
V. 선배들이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 공부가 지식을 확장하는 길이 된다면	42
	•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증거	45
	•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기	47
	•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50
	• 열린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는 여정	54
	• 무엇이든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	58
VI.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63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64
● 아로리 사용 설명서	68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이는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지향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은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융합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우수한 학업능력과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더’나 ‘진취성’이란 단어가 다소 거창하여 구체적인 개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멀리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미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수능 몇 점 또는 내신 몇 점의 점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량화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지 꿈을 가져 보십시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워온 꿈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우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전형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수시모집	정시모집
•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선발전형) •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 수능위주전형(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위 전형 가운데 정시모집 일반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을 제외한 모든 전형, 즉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는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각 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형 명칭	전형 소개	전형 요소*
수시	지역균형 선발전형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일반전형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I (정원 외 전형)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역적, 경제적, 개인적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 정신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저소득 학생과 농어촌 학생 그리고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하는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정시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II (정원 외 전형)	장애로 인한 어려움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대학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북한이탈주민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 모집단위에 따라 실기평가 또는 적성·인성면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합니다.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가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방식을 준비하여 2002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평가체제와 평가인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최근 3년 동안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인원의 70%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바람직한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적인 평가 방식의 가장 큰 의의는 각각의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이 변화했다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앞서 확인했던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교육목표에 맞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 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 자원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로 선택을 위한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고 원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과목인데 소수학생들만 선택해 평가에서 불리할까 두려우시다면 한 번 도전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교육 자원이 부족하고 선택의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교육 중심의 대학 입학전형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대학이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류평가 안내

| 서류평가란 무엇인가요 |

서류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에서는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에서는 서류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을 1차 선발하여 면접 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의 평가, 협의, 검토를 거쳐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는 현재 26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약 110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선발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므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



● 학업능력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서울대학교가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능력입니다.**

학생의 학업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활동, 교내대회,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학업 관련 활동), 학업 관련 탐구활동,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평가 기준

- ✓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 ✓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 ✓ 의미 있는 학습경험은 무엇이었는가?
- ✓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 ✓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 ✓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교과 성취도]

교과 성적 지표는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교과성취도를 파악할 때에는 교과 성적을 공식으로 수치화하여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취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경우, 교과성취도는 지원자의 학업능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량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년별/과목별 반영 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강자가 3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성적과 수강자가 20명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은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학년별 성적 변화, 선택 과목 특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정확하게 학업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학년	학기	과목	이수단위	등급	인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1	1	OOO	3	1	300	98	71.2	15.4
2	2	OOO	2	3	20	94	89.2	4.6
3	1	OOO	2	A	-	-	-	-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교내수상]

교내 경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거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 경시대회는 아래 표와 같이 학교마다 상이하게 시상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수상의 양이 아니라 참가 대상, 인원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 안에서 수상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학교	수상명	등급(위)	참가 대상
A	OOO	우수상(5위)	2학년 중 참가자(52명)
B	OOO	우수상(2위)	전 학년 대상(536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교재나 수업 내용(토론, 발표, 실험 등), 그 안에서 보인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수학 교과 중에서 유독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 탐구활동 등의 학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이 가능한 학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습니다. 탐구활동 경험의 유무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탐구활동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신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성적 지표와 교내대회 수상내역, 동아리활동 등이 결과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는 '결과'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천문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동아리활동 시간과 활동 내용 등 결과적인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서는 천문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동아리 참여 전과 후의 자신의 학업능력과 관련하여 변화된 부분을 기술할 수 있고, 입학사정관은 이 부분에서 학생의 호기심과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학업태도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탐색의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교과학습뿐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활동, 실험 수업, 교내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업 관련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학업태도를 보여 왔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지원자가 학업 기회를 찾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전했던 내용이 보인다면 지원자의 학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

- ✓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 ✓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 ✓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가?
- ✓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 ✓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 학업 외 소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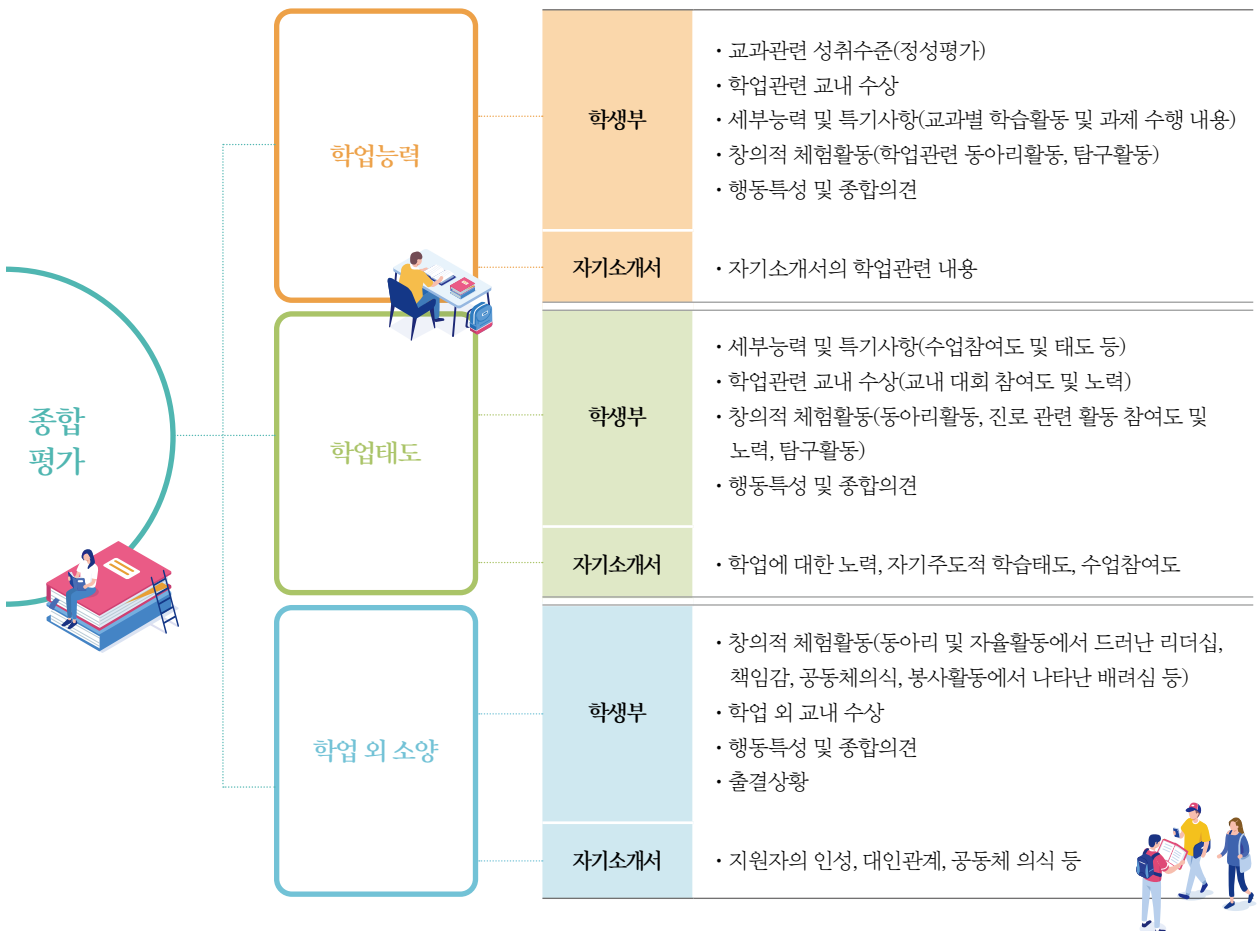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품뿐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업 외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판단합니다. 이 때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단순히 임원 활동 경력이 많은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원 활동의 횟수보다 맡은 역할과 활동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하며, 봉사활동 역시 봉사활동의 양이 아닌 활동 내용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 ✓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 ✓ 학교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 ✓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 ✓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 어떻게 평가하나요 |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 과정에서 크게 학생의 학업능력과 학업태도, 학업외소양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 때, 한 종류의 서류나 항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갖춘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수업 참여도와 수업 선택 내역, 학업 관련 학내 활동 참여 노력,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 제출서류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서류별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특정 부분만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성취도, 교내 수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가 무엇인가요 |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은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서울대학교에서는 **한 명의 지원자를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다수의 평가자가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형 준비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협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주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는 26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단과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110여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참여하며, 총 4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은 장기간의 교육과 사전 모의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준비합니다. 해당 모집단위의 전년도 선발 결과 분석 및 전년도 지원 사례 분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평가에서는 전임입학사정관 두 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합니다. 이후 각 모집단위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지원자들의 최종 서류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그 결과가 이전 단계 평가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Step 0

준비단계

전임입학사정관은 평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매년 많은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입학사정관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기간의 교육과 사전 모의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준비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학업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데이터 분석, 교사 간담회, 교육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우수성 지표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Step 1

전임입학사정관 평가

1차 평가

전임입학사정관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 의견, 면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2차 평가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다른 전임입학사정관이 1차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Step 2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정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한 1단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검토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 2차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Step 3

위촉입학사정관 평가

각 모집단위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해당 모집단위에 적합한 인재인지 평가합니다.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2인 이상의 위촉입학사정관이 평가하며, 1, 2차 평가를 담당한 전임입학사정관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최종 서류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Step 4

최종 평가

입학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3단계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면접 안내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면접과 제시문을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는 면접,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 서류 기반 면접 |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지원자 모두와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의 면접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자가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 등을 확인합니다.

평가방법	면접 시간	평가내용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	10분 내외 (단, 지역균형선발전형 미술대학 디자인과 15분 내외, 의과대학 20분 내외)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면접실로 이동하여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대기실	이동	면접실
수험생 확인 및 안내		서류 기반 면접 진행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므로 면접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하는 기술과 태도를 측정하는 면접이 아니므로 말투나 태도를 단기간 연습하기보다는 평소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담겨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 대비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위원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평소 학교에서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는 연습이 면접 당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을 본 선배들의 조언

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서류 기반 면접을 봤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면접을 준비하려고 지난 3년간의 기록들과 마주하고 나니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들만 기억에 남아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책 한 권 더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활동들은 남긴 기록을 보지 않더라도 기억도 생생하고 그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거침없이 떠오르는데, 학교에서 시켜서 한 것이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활동들은 쉽사리 기억이 나지 않아 기록해둔 것을 꽤 오래 들춰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면접 준비 경험 때문에 후배분들에게는 3년의 학교생활을 정말 ‘진실성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주하는 학교에서의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대하면 그 3년의 시간 자체가 자신의 진로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도 자연스럽게 쉽게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사실을 고2가 돼서야 알았고,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1학년 때 흥미롭지도 않은데 억지로 참여한 활동들의 기억을 되살리느라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후배분들은 입학 때부터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학교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_ 새내기 인문대학 인문계열 K

제가 생각하는 서울대학교 서류 기반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얼마나 깊이 사고했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역사교육에 가상현실을 접목하고 싶다는 생각에 예시를 만들고 자기소개서에 적었는데, 면접 때에는 그 예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를 고증할 수 있는 사료(史料)와 한계점이 무엇인지까지 물어보셨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문답 속에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짜 생각을 해보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듯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라는 역사교육은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한 지금 제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면접 준비가 합불 결과를 떠나, 자신의 인생을 점점하고 계획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_ 새내기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K

| 제시문 활용 면접 |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 문항이 사용됩니다.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들에게 제시문과 그에 따른 문항이 제공되고 모집단위별 30분/45분 동안 답변을 준비합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됩니다.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를 통해 모집단위(단과대학, 학부, 학과 등)별로 평가되는 분야나 과목을 제시하였으며, 각 모집단위별로 안내된 분야의 제시문과 문항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전공적성과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면접 시간	평가내용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	15분 내외 / 답변준비시간 별도 부여(30분 또는 45분) (단, 미술대학, 음악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평가시간 상이)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평가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순서에 따라 면접 준비실로 이동하여 제공된 제시문의 답변을 준비합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경과되면 면접실로 이동하여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대기실	이동	면접 준비실	이동	면접실
수험생 확인 및 안내		제시문 제공 및 답변 준비		제시문 기반 면접 진행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모집단위별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문대학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

인문대학의 경우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답 여부보다는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력, 논리력 등이며 전반적인 학업소양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가) 신에 대해 아무 의견도 갖지 않는 것이 잘못된 의견을 갖는 것보다 낫다. 전자는 불신이고 후자는 모욕이며, 미신은 당연히 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플루타르크가 그런 뜻으로 잘 말한 바 있다. “나는 갓 태어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은 플루타르크라는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느니 차라리 플루타르크라는 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 편이 낫겠다.” 무신론은 인간을 분별력, 철학, 법률, 평판 등에 의지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설령 종교가 없다 해도 피상적 도덕성의 지침이 될 수 있지만, 미신은 이 모든 것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절대 왕정을 세운다. 무신론은 더 먼 곳을 향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을 자중시킨다. 따라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다. 우리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시대처럼 무신론에 기운 시대가 평화로운 시기였음을 알고 있다. 반면에 미신은 여러 국가에서 혼란을 야기한다.

(나) 깨어 있고 효율적인 지성의 체제는 수많은 편견이 만개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런 체제는 편견을 억압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편견을 억압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편견, 즉 권위를 지닌 자의 편견을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편견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것, 편견을 선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성의 다원주의는 편견을 방임함으로써 사람들이 정설에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과감하게 실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 심지어 해롭고 악의적인 편견이라도 말이다. 1633년에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고집한 것이 그런 편견으로 받아들여졌다. 탁월함과 편협함은 같은 동력에서 힘을 얻는다.

[문제 1] (나)의 저자라면 (가)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하시오.

[문제 2] 적절한 사례를 논거로 들어 (나)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시오.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의 경우 화학 관련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며 고등학교 과학 교과 중 화학Ⅱ 수준까지의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답변 준비시간 45분 이외의 준비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화학]

메탄올(CH_3OH)은 휘발유 대신 고성능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메탄올 산화 반응의 열화학을 살펴 보자. 메탄올 산화 과정에서 산소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반응 A : 최종 생성물이 이산화 탄소(CO_2)와 물 분자

반응 B : 최종 생성물이 폼산(HCOOH)과 물 분자

[표 1] 화합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화합물 (분자식)	표준 생성 엔탈피 (kJ/mol)
일산화 탄소 (CO(g))	-110
이산화 탄소 ($\text{CO}_2\text{(g)}$)	-390
물 ($\text{H}_2\text{O(g)}$)	-240
과산화 수소 ($\text{H}_2\text{O}_2\text{(g)}$)	-140
폼알데하이드 (HCHO(g))	-110
메테인 ($\text{CH}_4\text{(g)}$)	-70

[문제 1] 반응 A와 B의 화학 반응식을 각각 완성하시오. (단, A와 B는 기체 상태 반응이다.)

[문제 2] 1몰의 메탄올이 25°C , 1기압(표준상태)에서 모두 반응 A만으로 산화될 때의 반응 엔탈피는 -670 kJ 이고, 모두 반응 B만으로 산화될 때의 반응 엔탈피는 -420 kJ 이다. 이 반응 엔탈피 값과 [표 1]을 참고하여 메탄올과 폼산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시오. (단, A와 B는 기체 상태 반응이다.)

[문제 3] 1몰의 메탄올이 모두 반응 B로 진행된 후, 모든 최종 생성물들을 물에 녹여 수용액 8 L를 만들었다. 25°C , 1기압에서 이 수용액의 pH를 구하시오. (단, 폼산의 이온화 상수(K_a)는 2×10^{-4} , $\log 2 = 0.3$, $\log 3 = 0.5$, $\log 5 = 0.7$ 로 한다.)

[문제 4] 메탄올, 폼산, 이산화 탄소 분자에서 각 탄소 원자의 산화수를 구하시오.

[문제 5] 대기 중의 이산화 탄소 증가가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산화 탄소를 유용한 화합물로 환원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표 1]과 이전 문항들을 참고하여, 기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산화 탄소의 환원 반응 중에서 발열 반응인 것들을 찾고, 그 반응식을 쓰시오. (단, 환원제로는 H_2 , H_2O , 또는 H_2O_2 만 사용하고 생성물은 탄소 원자 1개만 포함된 경우만 고려한다. 발열 또는 흡열의 척도는 표준 상태 기체 반응 엔탈피를 근거로 한다.)

공과대학의 경우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이 주어지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됩니다. 답변 준비시간 45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03

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수학(자연)]

실수 $a < b$ 에 대하여 닫힌 구간 $[a, b]$ 가 주어졌을 때, 함수 $y = f_{[a, b]}(x)$ 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f_{[a, b]}(x) = \begin{cases} a + b - x & (x \in [a, b]) \\ x & (x \notin [a, b]) \end{cases}$$

[문제 1] 합성함수 $y = (f_{[0, 2]} \circ f_{[1, 3]})(x)$ 의 $x=1, 2, 3$ 에서의 값을 구하시오. 또, 부등식

$$(f_{[0, 2]} \circ f_{[1, 3]})(x) \geq x + 1$$

을 만족하는 x 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 2] 두 함수

$$y = x^2, y = (f_{[0, 1]} \circ f_{[a, a+1]})(x)$$

의 그래프가 좌표평면 위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a 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단, a 의 범위는 $0 \leq a \leq 1$ 이다.)

경영대학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

경영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답변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전공학부 (3가지 유형 중 택 1)	· 수학(인문),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인문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 3가지 유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 제시문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유형은 위 표와 같으며, 평가내용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 모집단위별로 평가되는 분야와 과목은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의 제한으로 함께 안내해 드리지 못했던 경영대학 및 자유전공학부를 포함한 전체 모집단위의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와 웹진 '아로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업역량을 길러온 학생들의 학업소양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각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습 과정 속에서 관련 도서도 찾아 읽고, 토론, 탐구, 과제 등 학습활동을 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다소 깊이 있는 제시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활동을 성실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의 면접 및 구술고사 준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독서와 각 교과목의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우수한 학업소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과학 분야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도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단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다뤄보거나 관련 이론 등에 대한 이해와 응용 연습을 해 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수업 내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만들어 친구들과 토론 학습을 해 보는 경험,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고등학생 수준에서 과제를 해결해보고 발표하는 활동 등도 각 교과목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본인의 학업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본 선배들의 조언

저는 평소 공부할 때 누군가와 토론하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이 습관이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 제시문 면접은 결국 자신이 푼 수학 문제를 교수님께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 설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친구들과 어떤 문제를 풀 때 풀이를 공유하고 자주 말로 표현한다면, 실제 면접에서도 상대적으로 긴장을 덜 하겠지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풀이를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_ 새내기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J

저는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에 지원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물리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연장된 형태이지만 수능 위주 공부 또는 시험 문제를 잘 풀기만을 위해 물리를 공부했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제가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 상황을 만들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뒤져가며 궁금증을 해결하던 문제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동안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물리를 정말 깊이 있게 파보았고, 정답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궁금증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접근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_ 새내기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N

저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에서 수학 제시문이 활용되는 면접 및 구술고사에 응시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 제시문 기반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풀고, 자신의 풀이과정을 면접위원들께 직접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풀이를 전개해가는 사고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력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내내 수학문제를 논서술형으로 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이 뒷받침되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에 계신 수학 선생님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풀이과정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 함수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같이 자칫하면 빠뜨릴 수 있는 풀이 과정의 핵심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셨고, 이 덕분에 실제 면접을 진행하면서도 문제마다 핵심 개념을 답안지에 적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면접을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적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학 제시문 기반 면접의 또 다른 특징은 문제의 난이도가 결코 쉽지 않고 충분한 고민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45분의 시간동안 여러 세트의 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고를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풀이과정이 막혔는지 설명하려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면접장에서 15분 동안 풀이에 대해 설명할 때도 다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했으며,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제가 풀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고, 덕분에 준비시간에 완전히 다 풀지 못했던 문제도 면접 시간 동안 풀이를 보완하여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못 풀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_ 새내기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P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미래의 서울대 학생 여러분, 그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고등학교 생활은 대학교 입학만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미래의 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3년은 내 인생에서 없는 기간이야’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 내가 만드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활동, 어떤 공부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도전하는 학생

- 고등학교 생활 중 스스로 도전해 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생활해온 공간은 학교 그리고 그 안의 교실입니다.
- 교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될까요?

❖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교실에서의 수업,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했나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이해했나요?
문제풀이 요령보다 내용 이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실에서의 수업에 임할때 당장 눈앞의 점수 올리기에 연연하기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하세요.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이전에 다뤘던 교과 내용도 참고해 보며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연습으로 충실하게 지식을 쌓아가세요.

내게 중요한 과목, 진로에 맞는 과목에만 충실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진로계획을 세워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차 다양한 경험과 계기로 여러분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는 대학생활을 넘어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양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식이나 학문을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지적 균형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문사회학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예술가! 여러분의 멋진 미래입니다.

❖ 선택의 기회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자

학교마다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하고 폐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유형에 따라 교과목이 제한적으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반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넓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 때로는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역사가 좋은데... 동아시아사를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동아시아사 희망자가 겨우 16명뿐이라고? 윤리와 사상은 80명이 듣는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지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학사정관은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하여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수한 학업능력을 갖추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 선생님들의 진심과 노고가 깃들여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여러분은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입니다.

이러한 지식공동체의 일원인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용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만으로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업활동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나 종류의 활동이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활동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모두 의미 있는 배움이며,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실험 수업 등 교실에서의 수업 방식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실 수업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경험하면서 흥미로운 분야를 발견하고, 나의 학업 역량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수업시간에 발표,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연습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습 수업에도 충실히 참여합니다.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탐구 경험을 통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적성과 흥미도 발견하게 되고, 지적 성장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과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과제를 내주신다면 선생님들이 주시는 배움의 기회를 더 심도 있는 지식을 쌓을 도전의 기회,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기를 기회, 자신의 진짜 실력을 쌓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과 수업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그 기록을 꼼꼼히 살펴 여러분의 수업 활동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온 과정을 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움의 과정은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 교과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 교과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이야말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 서울대학교는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하자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교과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때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나의 실력과 역량을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서적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비 학자로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탐구활동, 모둠 수행 과제, 토론활동, 글쓰기 등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소양과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대회와 행사도 있습니다. 교내 대회 참여 종류나 횟수, 수상 등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상 기회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소양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양한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땀과 열정을 나누다보면 여러분의 성장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활동 기회는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업활동에 참여한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력해왔는지,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얼마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입니다.

❖ 예비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생들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토론활동, 주제탐구 활동에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는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어 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하는데 방향을 잡기 어려워요.
- 우리끼리 해결해가는 방법이 좀 미숙한 듯한데,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 분야와 관련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 이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토론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 논술 동아리 글쓰기 작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 과학 실험 동아리 만들었는데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배움을 통한 성장을 위해 펼쳐진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공부하십시오. 공부의 재미와 맛에 푹 빠져보십시오. 아직 그런 맛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정을 다해 공부해 온 여러분을 서울대학교가 기다립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 외에도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소양은 학업활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다져집니다.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예비 서울대 학생 여러분이라면, 열정을 담은 학교생활 속에서 훌륭한 인성을 갖춰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세요

고등학교 생활은 무엇보다도 학업활동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은 한 개인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고 사려 깊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업 외에도 고등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 예술,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보이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그 열정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활동을 해야 할까요? 예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입학에 특별히 유리한 학업 외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업에 열정을 쏟으면서도 조금 더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협동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배려심, 대인관계, 사회성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조화로운 교우관계를 맺어가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보여주기 식의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의 경우도 가까운 친구,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부터 찾아 실천해 봅시다. 처음부터 진심에서 우러나 실천한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에 의미 없이 채워진 수백 시간의 봉사실적보다 여러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진심을 다한 활동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가 생각하는 리더십

‘리더십? 난 리더십이 별로 없는데…….’

반장, 부반장 임명장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활동, 협동학습 등에서 구성원을 배려하며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여러분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 수업 중 모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 토론활동에서 함께 결론을 이끌어가며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학교생활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동아리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 모두가 주저할 때 친구들을 독려하여 청소를 주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갈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자질도 학교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길러온 다양한 능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있는 학교생활에 주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생각하는 수업, 배움의 장

❖ 교실 안에서 학생의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학업능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능력, 적성에 따라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학업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모두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규 수업의 충실한 학습활동이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학업 관련 동아리활동이나 탐구활동, 심화학습활동을 학교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지도와 후원에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도 큰 힘과 자극을 얻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으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적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학교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깊이 있는 지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능력에 맞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학습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활동 하는 모습을 선생님들께서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한층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알고자 하는 의지가 학교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 학업 외 활동도 지원해 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지닌 학생들과 서로 어우러질 때 학생들은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리더십, 사회성을 다지는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재능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학교 안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생활태도, 올바른 인성, 공동체 의식을 갖춘 학생들을 기대합니다.

학생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주세요

같은 교과목의 수업이라도 학교마다 교실마다 수업 내용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 저마다의 특성과 성장의 모습은 다르게 빛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을 꼼꼼히 읽으며 교실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은 어떤 능력을, 어떤 소양을 키우고 발휘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안에 **학생 개개인의 학습활동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과학습 내용에 대한 세세하고 장황한 내용보다 학생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해주세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기록을 담아주세요. 학습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배우는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된다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과목 수업에 임하는 자세, 수업에서 보인 적극성, 학업소양과 특성 등 선생님들이 보는 그대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관심, 학생의 고민

❖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의 진로와 목표, 가치관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노력의 질과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충실히 노력해 간다면 진로가 변한다 해도 그동안 쌓아온 역량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다른 곳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을 의지하며 목표에 따른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은 수업만 담당하고, 진학 담당 선생님들만 진학에 관심을 갖는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교과 담당 교사, 학급 담임 교사 등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항상 학생의 관심과 특성을 공유하여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진학 상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도해 주세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진학 상담을 위해 학원이나 사설 컨설팅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와 직접 소통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는 분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담임 선생님과 진학 지도 선생님에게 진학 관련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 진학 정보실이 마련되어 언제든지 학생들이 찾을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입학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와 더불어 자기소개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핵심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제출서류를 읽고, 관련 사항을 서로 비교해보며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2022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4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항목수가 줄어들고, 각 항목의 입력 가능 글자수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경된 양식을 먼저 확인 후 자기소개서 작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Check Point

•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안내> 자기소개서 양식 참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자기소개서 양식은 변경되었지만 입학서류로서 자기소개서의 의미와 입학사정관들이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쌓아온 본인의 학업능력을 중심으로 진로와 관련된 노력과 경험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학교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모습을 자신의 글로 나타낼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중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을 담아 주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부담을 느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라고 믿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 대부분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평가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더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본인의 목소리를 더하는 역할의 서류입니다. 자기소개서의 특성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나만의 생각과 강점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여주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 모습이 담겨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만의 모습을 나만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나’, ‘나의 노력’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대학에 지원하는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등학교 기간을 돌이켜 보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열정을 쏟아왔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내가 노력했던 많은 일들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실만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나의 생각을 담아보세요.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는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는지를 기록해 봅시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나열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 경력을 단순히 나열하여 대회명, 수상 일시, 수상 등급 등을 적는데 그치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 자질, 노력 등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특별히 노력한 과정이나, 역량을 쌓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왜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지를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주세요

자기소개서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특성이나 자질 등을 나타내야 하지만, 이것이 곧 감정적인 내용을 서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화 등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주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담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나 나만의 독창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만의 생각과 문체로 개성을 나타내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만의 언어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침묵하여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로는 학생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해주세요

자기소개서는 남과는 다른 나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문구나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문구로는 입학사정관에게 ‘나’를 표현하고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없습니다. “반장 역할을 잘 해냈다.”, “열심히 하겠다.” 등의 문구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막연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경력보다는 임원 활동의 계기나 동기,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경험, 이를 통해 향후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독서경험을 기술하는 항목에도 ‘자기 생각’을 담아주세요

자기소개서 독서 항목은 지원자의 독서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 안의 또 다른 자기소개서입니다. 따라서 책의 줄거리 요약이나 내용 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던 책을 선정하여 그 책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하였는지, 또는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선정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관련성이 없어도 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책을 선정하여 경험과 생각을 담아주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십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평가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떤 것인가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교생활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교육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시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잘 드러나게 작성해주세요

서울대학교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중에 보여준 학습 노력, 학업수행 과정, 열의, 학업소양, 적성, 학습 방식 및 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성적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이외에 수업시간에 순간순간 드러날 것입니다. 교실에서의 수업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역량을 키울 기회로 삼아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소양을 다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보인 개별적인 노력을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중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학생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업 결과 이외에도 학생 개개인이 어떤 노력과 학업 특징을 보여 왔는지, 특별한 학업소양을 어떤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보여 왔으며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장황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보인 특징적인 학업소양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선별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활동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소양, 개별적인 경험이나 노력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셔야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을 직접 지도하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신의 공부방법부터 면접 준비과정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을 고3 후배들에게 건네는 선배들의 진심 어린 조언까지

구체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곳에 실린 선배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밑거름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나 열매를 맺을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옮겨진 선배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선배들의 조언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배들을 위해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신 새내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01_ 공부가 지식을 확장하는 길이 된다면

교실에서 저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집착’입니다. 항상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수업에 임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 수업마다 평균 5개 이상의 질문은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바빠 흘러가는 고등학교 수업에서 질문은 방해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질문은 배움의 질을 높여주고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해줍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 다른 학생들도 몰랐던 것을 같이 알아갈 수 있고, 삭막한 고등학교 수업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주입식 교육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매 수업마다 열정을 쏟아부으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암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배운 내용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다시 읽어볼 수도 있고,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문제를 푸는 것은 배움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단순히 시험 보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선호한 방법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배운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하거나, 스스로에게 되풀이하였습니다. 역사 과목을 예로 들자면, 사건의 배경-전개-결과를 설명하는 중에 빈약한 부분이 있으면 친구와 함께 그 부분을 보완하며 구체적인 내용 이해를 도왔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도 온갖 법칙, 정리들을 먼저 증명하고, 이후 증명하는 과정을 스스로에게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 소모가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게는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방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야말로 아마도 최고의 공부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공부하는 것을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는 길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각자만의 공부법과 배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H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교과 성적만을 위한 공부뿐 아니라 탐구정신을 갖춘 공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뿐 아니라 정리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증명법을 찾아보거나, 특정 단원이 자신의 진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더 능동적인 공부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되는지 생각하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얻고자 노력하는 태도는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한 페이지 읽고 넘어갈 수 있는 탐구활동 부분을 추가적으로 자신이 조사해보고,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까지 진행하면 그 지식을 자신만의 지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폭을 확장해나가는 자세를 실천하신다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P

— **학습 과정 속에서 자신이 흥미를 느낀 주제가 있다면 거침없이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수학 과목은 자연계열 친구들과 내신을 같이 냈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번 부담감을 갖다 보니 시험 때 긴장해서 성적이 좋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세금 고지서를 보고 옛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찰에 주목하여 18~19세기 상평통보 1냥의 현재 가치를 추산해 보았습니다. 당시 도량형을 현대 단위로 변환하고, 추산한 값의 변동 추이와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단한 수식을 세우고, 적합한 결괏값을 찾으려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 수학을 통해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앞으로 수학을 학습하는 데 흥미를 되찾아 주었고, 저는 3학년 때 경제 수학 과목을 선택해서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K

— **저는 호기심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항상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머물지 않고 저만의 탐구로 이어 나갔습니다.** 문학 교과서에서 읽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으며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수행평가 소설 쓰기 활동에서 노동 문제를 고발하는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자신이 소비하는 상품이 생산되는 환경을 묵인하는 인권운동을 주인공으로 ‘한 모금의 침묵’이란 소설을 작성하며 불의에 대항하는 용기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해보았습니다. 이후에도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노동법을 배우고 나서 1960년대와 현재의 노동법과 노동인권을 비교하는 강연을 진행하거나 헤겔, 마르크스, 하이데거의 노동에 대한 견해를 비교해보며, 스스로 노동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는 등 노동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처럼 학교 수업이 단순히 입시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하는 성장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 P

— **알고 싶은 것을 스스로 공부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할 것입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이라는 정량적 수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워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시험범위 외의 뭔가를 스스로 공부한다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것일 뿐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에도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는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W

저는 수업을 듣는다고보다 항상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설명에 오류가 있을 때 건의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틈틈이 앞부분을 복습하며 수업의 흐름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제가 우수한 학교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배운 것들을 체화하고 저만의 지식창고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도 능동적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H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틀에 박힌 공부와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사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질적인 물음을 던져볼 수 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해진 질문에 답을 적어내는 것은 이 학교에 지원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가진 능력일 테지만, 자신만의 물음을 던지고 자신만의 답을 파헤쳐내는 경험은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개별적인 가치입니다. 정해진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 3학년 동안 사진예술에서 시작해서 심리학, 실존주의 철학을 거쳐 실존주의적 문학 서평,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성찰, 나아가 유미주의와 극단적 탐미주의에 이르는 긴 탐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길게 이어졌던 탐구는 모두 예술에 대한 본질적인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을 지속해서 연결하고, 이를 위한 공부를 스스로 쌓아나갔던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답을 찾는 공부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어진 학습 과정을 벗어나 자신만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경험을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과 범위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수단이지, 성장의 한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 G

저는 어떠한 것을 배웠을 때 이를 직접 적용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넘쳐나는 과제, 많은 수업시간 등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복습을 미룬다든가 그저 이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빈번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원리에 대한 학습, 그리고 이해에서 그치는 것은 배움의 맛보기만 보고 끝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할만한 실생활의 사례는 없을지, 응용할만한 분야는 없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 과목에서 원리합계를 배운 후 실제 은행상품에 적용해보기도 했고,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조건부확률을 배운 후 질병의 민감도, 특이도, 유병률을 고려해 전염병 검사의 결과에 따른 실질적 확진확률을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구과학Ⅱ’ 과목에서 단열선도를 배우며 Skew T log P라는 단열선도를 이용해 제가 사는 곳의 날씨를 분석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개념에 대한 저의 이해를 더욱 단단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과목 자체에 대한 흥미도 또한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개념을 적용해보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 결국 그 과목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운 것을 자신의 손으로 써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뿌듯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이후의 공부에 있어서 굉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후배님들께서도 꼭 학습과 탐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J

02_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증거

과학탐구과목들을 배우다 보면 교과서에 실험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목들을 배우며 실제로 그 실험들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험을 실제로 해본다면 학우들에게 과학 과목들에 대한 흥미를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이라 믿어 선생님께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실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아리에서도 교과범위 내의 실험을 해보고자 했으나 실험도구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굉장한 아쉬움을 느꼈고 저는 ‘물리학 실험’이라는 협력교육과정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물리학 I, II에 걸쳐 배운 이론적 내용들을 MBL프로그램을 이용해 실험해보면서 이론적 지식이 탄탄해짐을 느꼈습니다.

기억나지 않거나 생소한 개념들은 책이나 서칭을 통해 학습하고, 이미 아는 개념들은 다시 복기하며 실험 전 이론적 기반을 탄탄히 다진 상태에서 실험의 전반적인 과정을 실험조원들과 논의하며 실험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아 실험을 망친 경우도 있었고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상황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모두 여러 명이 참여하는 실험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었기에 이를 대처하고 해결해나가며 갈등 해결과 협력의 중요성을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재미없는 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실험들도 해보며 실험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수고를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깨달았고, 그 수고 끝에 마침내 결과를 얻어냈을 때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실험이 이론처럼 이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론과 다른 결괏값이 나온 이유에 대해 탐구해보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며 실험은 항상 마음처럼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위해 가능하면 통제된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한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론 내려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범한 고등학교 과학탐구 과목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과목을 찾아 선택해보는 것도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J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는 교내활동은 교내 도서부 동아리 활동입니다. 단순히 서가 정리만 하고 끝나는 도서부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도서관에 더 많이 올 수 있을지 고민한 종합 기획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 얻은 온갖 지식들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수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도서관 행사를 매 학기 기획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광고, 홍보 방법에 대해 공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2학년 때 도서부 차장이 되면서 주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각자의 봉사 일정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봉사활동 중 벌어진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것까지 대인관계 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선불리 제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특정 활동을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혼한 반장, 부반장, 학생회 활동 한 번 없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대신 동아

리나 수업 시간에서의 활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필요한 마음가짐을 익히고 창의적으로 공동체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K

— 관악부 활동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막바지에 찾아온 슬럼프 기간에 큰 힘을 주었고, 이러한 버팀목 위에서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관악부 활동 초기에 저는 합주를 단순히 '각 악기가 자신의 파트를 동시에 연주하는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이는 평소에도 모듬활동을 '개인들이 모여 분담 받은 자신의 일을 하는 활동'으로 보았던 제 성격이 반영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관악부 활동을 하면서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곡의 템포가 빨라지면 그 흐름에 맞추고, 어떨 때는 스스로 그 박자를 당겨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등 전체를 보는 시야가 길러졌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제 가치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각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덕분에 개인 활동들로만 가득하던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는 2학년 때 차츰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로 채워져 갔고 비로소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후배님들도 굳이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 즉 취미를 한 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명 그 활동에서도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J

— 학생부종합전형을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은 다양하고 독특한 활동을 해서 그것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화려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약간의 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을 참여해 진부할 수 있는 내용에서 저만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국어과에서 개최한 창의정책제안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대회는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교과서나 뉴스에 실리는 사회문제를 주제로 해서 이미 있는 정책들을 검색해 약간만 비틀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회에 진심으로 참여했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의 분리수거를 주제로 환경 문제를 제기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에너지자원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했기 때문에 여러 에너지문제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제가 선택한 환경문제를 평소 관심 있던 재생에너지 학문과 융합시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를 써 내려가며 생산공정에 대한 내용을 쓸 때 화학적인 파트가 있어 화학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 같이 공부하기도 하며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뿐더러 희망하는 학과에서 다루는 학문도 조금 맛볼 수 있었고, 고등학교 과정 내의 과목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특별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 내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L

학교생활기록부 채우기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큰 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위 말하는 스펙쌓기를 위해 교내활동에 끌려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니다. 무언가에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채우기가 활동의 1차 목적이 된다면 나 자신이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거나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덕분에 입시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고교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중구난방의 서류가 되어가고 있어서 선생님께 이제 걱정할 때도 되지 않았냐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중구난방으로 적힌 모든 것들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이지만 문학작품 읽기는 좋아하지 않고, 수학을 좋아하고, 운동부로 활동하는 학생이 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서류상의 ‘나’라는 사람을 만들려 하지 말고, 있는 ‘나’ 그대로 고교생활을 하며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교내활동을 대한 태도였고, 결과적으로 입시 스트레스를 줄임과 동시에 자기계발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한 활동들은 그다지 어렵고 복잡한 활동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활동들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H

03_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기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후배분들도 매 학년 말, 어떤 과목을 들을지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학년에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업을 듣는 학생 수에 따라 등급으로 성적이 나오는 방식 인지라 과목 선택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2학년 진급 당시 확고한 꿈은 아니더라도, 대학에 진학한다면 무조건 사학을 전공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동아시아사를 꼭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 학교에서 동아시아사는 수강생이 17명밖에 나오지 않았고, 등수가 등급이 되어버리는 정량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상황임 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원하는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에 동아시아사를 선택했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단 한번의 실수도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불안감은 있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원하는 공부였기 때문에 암기나 수행평가도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또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어차피 1등, 1등급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의 양은 그 과목 인원이 몇 명이든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1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의 양과 힘듦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그 과목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어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인원수와 등급에 연연하며 많이 힘들었는데, 차라리 ‘나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한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성적이 떨어져도 후회는 없다.’ 생각하며 성적이 아닌 공부에 집중하자 마음도 편해지고 성적도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2학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3학년 때는 세계사와 정치와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과목 인원이 13~15명으로 더 치열해졌지만, 오히려 선택함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한다는 사실에 집중했고, ‘이 과목의 1등이 된다.’가 아닌 ‘우리 학교에서 이 과목을 제일 잘 아는 건 나다.’를 목표로 삼고 공부하자 성적으로 인한 부담감도 덜어지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고3 시기 한창 대입을 준비할 때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책자에서 ‘나한테 필요한 과목인데 소수 학생들이만 선택해 평가에서 불리할까 두려우시다면 한 번 도전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장을 발견하고 굉장한 용기와 위안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안내서에서 저 문장을 발견하고 용기를 냈듯이 제 글을 읽은 후배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 K

3학년 때, 저의 고등학교에서 이공계에 진학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은 ‘생활과 과학’, ‘응용프로그래밍’ 중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듣길 희망하는 과목은 응용프로그래밍 교과목이었지만, 인원수가 적어 1등급 인원수가 단 한 명밖에 안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처음 수강인원과 1등급 비율을 듣고 큰 걱정을 했지만, 그 걱정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수업은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웠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방식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매시간 주어지는 과제를 해결하고, 산출물을 제작하는 것이었고, 스스로 고민하고 과제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여태껏 배워 온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시 응용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프로그래밍 실력이 더 늘어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한 대로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응용프로그래밍 수업을 토대로 동아리활동에서도 제가 만들고 싶은 산출물을 직접 제작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배님들께서도 자신이 관심 있지만 실력이 부족한 교과목이나 분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큰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P

‘사회과제연구’ 과목을 수강했기에 제가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과제연구 수업은 여러모로 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2학년 사회과 심화 과목으로 사회과제연구와 세계문제를 다루는 수업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회과제연구는 학생이 직접 탐구주제를 정해 한 학기 동안 탐구를 한 후 보고서를 쓰는 연구수업이라 들었고, 반면 세계문제 수업은 강의수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회문제와 이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탐구해보는 점에서 사회과제연구 수업이 무척이나 기대됐고 사회과제연구 수업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문제 수업이 수강인원이 많았기에 그 수업을 수강하면 높은 확률로 좋은 성적을 거둘게 분명했습니다. **무난하게 강의식 수업을 들으면 몸도 마음도 편하겠지만 수동적인 학생으로 머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도전을 택했습니다.** 사회과제연구 수업은 1학과와 2학기 각각 주제가 조금씩 달랐는데, 1학기 때는 ‘우리 지역의 문화’가 큰 주제였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신분해방운동을 소주제로 정해 2학년 1학기 동안 연구했습니다.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뒤에도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백정 계층이 일으킨 대규모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며 평등을 울부짖는 백정들의 목소리를 한국사사료집과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등을 발굴하며 생생히 느낄 수 있었으며, 운동의 취지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친구들의 자료와 함께 엮어 지역문화 홍보집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빛나는 역사와 뜨거운 마음을 손수 만든 자료로 널리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 복지권과 교육권 같이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제도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우며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편한 수업보다는 얻어가는 게 많은 수업을 택하길 추천합니다. 성적이 낮게 나오진 않을까 하는 걱정엔 공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을 때 늘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회과제연구 수업은 저에게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즐거움을 알려 주고, 재학 중인 학과로 인도해 준 고마운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도 이 과목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H

— 지방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저는 기하과목을 수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과목 선택을 하더라도 과목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학생들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저는 기하, 고급수학 I, 고급물리학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였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란 한 학교에서 개설된 소수 과목을 타 학교학생도 수강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통해 심화된 내용을 학습 하면서 탐구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은 큰 소득이었습니다. 고급수학 I 을 수강하면서 배운 행렬개념이나 극방정식 등의 개념을 활용해 극좌표계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케플러법칙을 극좌표에서 증명해보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단순히 과목을 하나 더 듣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탐구의 폭을 넓히고 흥미를 높여줌으로써 보다 풍부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수업이 개설이 되지 않았을 때 공동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K

— 제가 선택했던 과목 중 하나는 ‘과학과제연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경계열 진학을 원하면서 과학계열의 진로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잘 하지 않는 선택일 것입니다. 사실 ‘과학과제연구’를 들으면서 후회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과학과제연구를 들었던 학생들 중 과학계열을 진로로 하지 않는 학생은 저 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과학과 연관되지 않는 학문이 없을 만큼 과학의 중요성이 커졌으니까요.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문이과 통합 인재상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 주제로 사회와 과학을 연결하려고 노력했고 ‘유전자 조작 기술만으로 소설 『멋진 신세계』의 디스토피아를 구현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라는 과학기술과 멋진 신세계라는 문학 소설, 그리고 디스토피아라는 사회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제연구를 하면서 모든 학문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과와 이과, 사회와 과학, 인문과 기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과목도 자신의 관심사와 연관성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야를 넓히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영대학 P

04_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면접 학원을 고려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면접의 막막함에 학원을 가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외부기관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담담하고 솔직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면접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지원하여 서류 기반 면접을 보았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학교생활을 기반으로 한 질문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의 생활기록부를 정독하였습니다. 그 후, 활동별 과목별 내용과 성장한 점, 느낀 점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에 책을 읽을 때마다 인상 깊은 구절과 감흥을 독서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도서 관련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한 후에는 직접 말해보려 노력하였습니다. 면접은 결국 면접관 앞에서 말로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한 자료들로 스스로 예상 질문들을 작성하고 답변해보며 일목요연하게 말하려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주관한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면접의 긴장감에 익숙해졌으며, 학교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으며 논리성을 다듬어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 생각했음에도 실제 면접장에 들어서려 하자 긴장이 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내가 최고야'라고 속으로 되뇌자 편한 마음을 갖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는 제가 정말 했던 활동들을 질문해 주셨기에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면접은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꾸밈없이 진솔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활용한 자료의 이름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 P

면접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고의 측면에서는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제시문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을 준비하면서 수능 위주의 문제풀이 보다는 개념서 속 개념에 집중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교과서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과서 속 내용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 교과서를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또한 표현의 측면에서는 발표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하기 능력은 평소에 수업시간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발표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니,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특히 학교 내외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결국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대상자와 면접관으로서 활동하는 경험 둘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 면접이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대상자였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으로 활동한 2학년 때 면접관의 입장이 되어 어떤 행동과 말을 취하는 것이 면접 태도에 있어 유리한 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표,

대회, 동아리 면접과 같은 말하는 방법을 평소에 익혀두는 것이 결국 면접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L

— 저는 일반전형에 지원했기 때문에 제시문 면접을 준비했고, 인문사회계열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모든 면접을 학교에서 준비했고, 면접 준비를 위해 학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1차 합격발표 직후 면접을 준비할 시간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긴장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역량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에 다니며 천천히 쌓아온 사고와 말하기의 경험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오래 기억하는 것, 독서를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쌓는 것, 토론과 연설 등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통해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고 임기응변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에 공개되어있는 기출 제시문과 문제를 실제 면접처럼 시간제한을 두어 분석하고, 답임선생님과 수시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답을 유도하고자 하는지, 제시문 내의 소재들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교과과정 내에서 배운 것 중 관련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비슷한 상황의 예시를 알고 있는지, 제시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더 깊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의 제시문은 보통 사회 교과에서 배운 사상이 드러나는 상황을 제시하거나 문학작품 중 딜레마에 빠진 장면을 제시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철학 관련 제시문은 저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교과목에서 진행하는 토론 및 발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 교과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해당 사상가나 역사에 관한 도서를 찾아 읽던 습관 등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시문 분석을 위해 특별히 급하게 새로운 지식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 꾸준히 쌓아온 지식을 제시문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L

— 제시문 면접은 사회과학/인문 영역 전반에서 주제가 선정되어 미리 제시문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넓은 영역에 답변할 수 있도록 문해력과 비판력을 갖추는 게 면접 준비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1~2주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제시문의 형식에 맞는 답변을 구성하는 연습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 아니지만, 평소 충분히 사고해 본 경험 없이 도출된 답변을 통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생각의 깊이를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깊은 사고에 익숙해지기 위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독서입니다. 꼭 제시문으로 출제되는 사회 현상 분석이나 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책이 아니어도 독서를 하면서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자신이 동의하는 부분, 비판하고 싶은 부분을 생각하며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깊은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더 추천하고 싶은 건 자기 자신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면접 준비에 앞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구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제가 진로를 설정한 과정과 대학에 진학해서 하고 싶은 공부까지 정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면접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가치관을 답변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면접 현장에서 시장 규제의 장단점을 보여주는 사

레가 담긴 두 제시문 중 어느 제시문의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으신 교수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의 기본 이념 중에서도 정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 규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제시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뒤에 이어진 지원 동기에서 독일법을 대표로 하는 대륙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를 밝히면서 법을 중심으로 일관된 관심사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시문 면접일지라도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파악해두는 과정은 나만의 답변을 구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C

— 다른 여러 공부들만큼이나 면접 준비에 있어 걱정인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시절 내내 마음 한켠에 면접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수능 이후가 되니 걱정했던 것만큼 막막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막상 준비하려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 제가 쌓아왔던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면접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접은 면접 직전에 급하게 사다리 쌓듯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근차근 계단을 쌓듯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치의대학원 치의학과 일반전형 면접의 경우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면접에서 묻는 질문은 엄연히 다르지만 묻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전달력 있게 발화하는 것은 면접유형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며칠 만에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토론회, 교육청 토론한마당, 토론 동아리 등에 참여하며 수많은 토론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과 전달력 있는 어조와 목소리 크기 등을 찾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 자율, 진로, 동아리, 교과 영역에 걸쳐 본인이 궁금했던 것들을 찾아보고 탐구했던 경험이나 전공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같은 것을 묻는 면접입니다. 그렇기에 전공적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탐구활동과 충분한 독서를 하고자 했습니다. 면접 직전에는 학생부 내의 활동별로 탐구활동을 하게 된 계기, 과정, 어려움, 변화된 점, 깨달은 점, 추가적인 활동과 같이 카테고리를 나누어 키워드 형태로 정리하고 말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을 경우 적어도 예외적인 범위를 제외하고는 면접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은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의 경우 어떤 상황이나 제시문이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면접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면접 형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다는 점에 항상 초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뜻이고 이는 어떤 경로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든지 비판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경로를 통해 문제에 접근함과 동시에 이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비판의 경우까지도 동시적으로 생각하며 답변을 준비하는 연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

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면접을 준비했는지 간에 본인의 노력에 자신감을 가지는 순간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본인의 답변에 확신과 힘이 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J

제가 서울대 MMI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저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MMI 기출문제를 보고 자신만의 답을 생각하고 전달하는 것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모의면접을 할 때 자신과 다른 선생님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른 관점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면접 당일이 되고 저는 '면접을 교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갔습니다. 면접을 '시험이 아닌 대화'라고 생각하니 저의 떨리는 마음은 한층 가라앉았습니다. 처음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할 때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하고 싶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었는데 교수님께서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의대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과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소아청소년과에 가고 싶은 이유를 종종 고민하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의 수가 줄어들지만 그럴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한 의사 중 한 명이 된다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가치관이나 생각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하며 자신이 이 직업을 가지고 싶은 이유를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자신의 진로에 관한 생각과 활동, 그리고 가치관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문 기반 면접은 생물학이나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방법과 사회적 관계를 묻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반 학생들의 관계도를 보여주고, 이 반 학생들의 유형에 관하여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저의 학교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시문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제시문과 관련하여 저의 학교생활을 묻는 지문과 저와 의견이 다른 친구를 설득하는 종류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면서 이 제시문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상황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보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제시문 안의 학생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교수님의 반박을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이며 저의 생각을 수정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저는 서울대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접을 통해 저의 생각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면접이 긴장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가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의예과 K

05_ 열린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는 여정

아직 명확한 진로가 없어서 고민하는 후배님에게는 조금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학교 수업이나 독서, 강연,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는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꿈을 갖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 공동교육과정으로 '논리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연역 논증, 귀납 논증, 명제논리 논증 등 다양한 '생각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던 철학은 도덕적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것을 파헤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불리 철학은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논리학을 배우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논리기호를 사용하여 결론을 증명하거나, 사람의 사고가 갖는 일반적인 법칙성에 대해 연구하는 논리학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연역 논증과 수학적 귀납법의 관련성을 통해서 수학에서도 논리학의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수리 기호를 통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마치 논증을 통해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졌고, 더 어려운 명제 증명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책에서 읽었던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 이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괴델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찾아 읽기도 했고, 불완전성 원리 이전의 공리적 집합론, 메타수학, 힐베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불완전성의 원리를 증명하는 과정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논리학에 관한 관심은 비트겐슈타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전과 윤리 수업의 개인 프로젝트로 '논리-철학 논고'의 일곱 개 명제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학과론과 과학론 부분을 읽으며 낯선 논리기호, 함수와 조작의 차이, 단어에 담긴 비트겐슈타인만의 의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설서를 찾아 읽었음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 책의 번역자이신 교수님께 이메일로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과의 문답을 통해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은 공부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구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 P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컴퓨터공학부에 진학하길 희망하는 학생이었지만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컴퓨터공학 내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전공하고 싶은지도 결정하지도 못한 채 막연하게 컴퓨터공학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과정에서 진로희망강좌 '프로그래밍'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게 되었지만, 저의 실력은 수업의 난이도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적인 내용을 배운 후에는 바로 심화적인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는데 코딩을 바로 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저는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는 못하더라도 각각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마치 처음 읽는 외국어와 유사하게도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 내용이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 혼자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부족한 부분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수업을 듣고, 인공지능 자동차를 제작하고 작동시키는 수업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인공지능의 분야로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P

—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일찌감치 자연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신비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우주에 계속해서 눈길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천문학자라는 진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관련 탐구를 진행하던 중, 천문학과 물리학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많은 천문학 관련 책을 읽으면서 물리학이라는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계속 천문학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정해두지 않고 열린 마음과 시각으로 탐색했던 덕분입니다. 그렇게 천문학과 물리학 사이에서 고민하던 저는 스스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저 학문을 ‘왜’ 좋아하는지를 자문하였습니다. 해답은 물리학이었습니다. 저는 우주보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에 호기심을 던지는 성격과도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물리학자로 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파동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파동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저는 물리학에 약간의 회의를 느끼고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리학을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를 밝히는 것보다는 제 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것에 가까웠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자연과학에서 공학 쪽으로 한 번 더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여러 날을 고민했던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동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파, 즉 파도와 해양 쪽도 접하게 되면서 진로가 해양공학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체역학 등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으면서 세상에 실질적으로 기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한 장래희망이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었고, 현재는 이러한 제 기대에 부합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진로가 상당히 자주 바뀐 경우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원하는 길로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몇 번의 진지한 고민과 자문이 방향을 정할 때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천문학에서 물리학으로 바꿀 때나 물리학에서 해양공학으로 바꿀 때도 처음부터 해당 학문을 생각하고 변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배척하지 않는 마음으로 관련 자료를 접하다 보니 그 길이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학생이 진로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

지 않습니다. 바뀔 만한 확고한 근거가 있다면 역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진지한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J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관심 분야는 있었지만 뚜렷한 꿈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회가 되는대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꼭 나의 관심분야와 맞아떨어지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경험치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일단 하고 봤던 것이 많습니다. 이과생이었지만 시사 관련 토론 대회에도 나가보고, 역사 연극도 해보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나의 진로를 넓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는 더 뚜렷한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꿈을 찾았다면, 혹은 ‘이게 내 꿈이야!’라고 할 만큼 확신은 없어도 관심이 가는 게 생겼다면 그것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지만 직접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많으니 열심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진행하는 고교생 수의학 아카데미에 매년 참여해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직접 실습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만난 비슷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이나 영상을 추천해 주거나 관심분야를 공유하며 내가 몰랐던 진로를 알아갈 수 있었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꿈을 가져야만 한다거나 혹은 꿈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에 갇히는 것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는 대학원서를 쓰는 순간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몇 번이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삶이 더 행복한 삶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유롭게 꿈꾸면 좋겠습니다.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H

‘늘 그래왔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되물으며 진로를 찾아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같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금방 알게 됩니다. 활동이 많은데도 어떤 학과에 대해 쓸 말이 없다면, 열심히 해온 과거의 자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내가 그 일을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자기소개서의 방향을 경영에서 미술, 디자인으로 바꾸니 경험과 배운 점을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좋아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되고 관련한 활동도 많이 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 점은 입시에서 어떤 일을 좋아한다는 자체만으로 그 학과에 진입하는 데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3학년이 되어서 학과 경로를 틀어버리면 입시에 불리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그 점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면접에서 경영학과에서 바꾼 이유와 경영과 디자인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왜 진로를 바꿨는지, 이전 학과를 준비하며 얻은 것들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진로를 바꿀 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는 자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한 과정인데 입시 때문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인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로 향한 첫발을 잘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미술대학 디자인과 Y

— 저는 언어를 공부해도 사료 해석이나 언어의 변천사에 흥미를 느꼈고 정치와 법에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사가 좋았고 과학과 수학 공식을 배우면서도 이 공식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사회 분위기나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등 초점은 항상 역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면 전공은 무조건 역사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정확한 직업은 떠오르지 않지만 대학에서 듣고 싶은 수업을 다양하게 듣다 보면 길이 보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전공과 직업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처럼 정확한 진로 목표가 없는 후배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활동들을 차근차근 다 해보셔도 되고,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적어도 이 길은 아니네.’ 하면서 지워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만약 학과를 정해서 목표로 삼고 싶으시면 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과 소개를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과의 이름만 보고 어떤 것을 배울 것이라고 추측한 것과 꽤나 다른 내용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보면서 흥미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하나의 의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 K

— 저는 계속 다른 분야에 눈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미술 작품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하는 역사 공부가 재미있어 사학과에 관해서 찾아보기도 했고, 역사에 재미를 붙이니 철학 등의 다양한 인문학을 서로 관련 지으며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 철학과 예술 사조의 변화, 관련된 환경 변화 등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며 끝없이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저의 인문학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미술사에 대한 지식을 거의 가르쳐주지 않았고, 미술 분야의 공부는 독서를 통해 충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연결 지으며 복합적인 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경험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영감을 주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대학에서 무엇을 더 공부하고 싶은지, 졸업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막연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마음에 끌리는 선택을 하다 보면 자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조금씩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어떤 경험들이 즐거움이나 보람을 주었는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타인의 권유나 사회적인 평가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L

— 저 역시 아직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로가 없진 않습니다. 진로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현재 희망하는 진로가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걸 고민해 보세요.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다 ‘이 길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 또 거길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로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한 길로 쪽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지만 대학에 오고 사회에 나가면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아하는 것을 좇으세요.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의 진로 자체가 아니라 왜 그 진로를 추구하는지 그 진로에 대한 열정이 어떠한지를 궁금해할 겁니다.

경영대학 S

06_ 무엇이든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

—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교내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심지어 등교 자체에 지장이 생긴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코로나로 인해 불가능한지가 아니라 무엇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열중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견뎌내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대면수업에 비해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저는 그 남는 시간을 그동안 부족했던 독서량을 채우는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H

— 저는 제가 오랜 수험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데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무던한 성격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기대한 것보다 낮은 시험 성적이나 막막한 수행 평가, 친구 관계 등 수많은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무너진다면 고된 수험생활을 버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성적이 낮게 나와서 아쉬울 순 있겠지만, 그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스스로를 과신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태하게 보낸 날들이 당장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좌절하지는 않되,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마세요.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L

고3 때의 스트레스 대부분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비롯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비교는 자신을 깎아내리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고3 시절엔 여유를 가지라는 조언이 터무니없게 느껴졌지만, 후배들한테 여유를 가지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유를 가진다는 게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란 걸 꼭 알았으면 합니다. 특히 인터넷의 정보를 보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저 ‘합격한’이란 수식어가 붙었다고 예시자료들을 맹신하지도 마세요. 자신을 믿고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려가면 어느새 자신의 기록들이 예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미술대학 디자인과 Y

— 저는 1학년 때부터 압도적으로 공부를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공부량을 가지고 있어도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고, 심지어 저보다 적은 시간을 공부하고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차이를 노력으로 메우려고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지쳐 슬럼프가 찾아온 적도 있었지만, 저는 이를 통해 성적에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었고 결국은 원하는 학

교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나, 공부량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차이를 뛰어넘을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러한 사실에 지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제가 그랬듯이 후배님들도 꼭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라'라는 말은 어찌 보면 가장 진부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바꾼 것은 바로 바이러스였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라는 말이 익숙해졌고, 학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나 온라인 클래스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그저 받아들이며,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계속 길어지는 거리두기에 지쳐 노력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기에 남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지요. 저는 코로나-19 덕분에 아슬아슬하던 제 성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은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이니 만큼, 오히려 이러한 때이기에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나태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요.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후배님들은 꼭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미래에 활짝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J

— 보통 서울대학교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들어간다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아주 두꺼워야 하고 성적도 전교 1등에 상장도 많고 굉장히 화려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상장도 한 페이지를 넘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내대회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면도 있었지만 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클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주변의 걱정과 약간의 무시 그런 것들은 그냥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진로와 입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를 믿고 밀고 나가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무관하게 어떤 공부를 했는지 조금 소개해드리면 초등학교 시절 일본에서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기사를 읽기 위해 독학으로 일본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꼬마가 독학이라고 해봤자 소설책을 사서 읽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와 일본어 수업을 듣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봐도 될 정도가 되어 고3 올라가는 겨울에 일본어능력시험을 봐서 제일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주과학 분야가 발전한 러시아 자료를 읽기 위해 러시아어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니 주변의 걱정이 한가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서울대학교 합격소식을 들은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사람을 잘 본다고. 이런 제가 합격했으니 후배들 누구든 꿈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서울대학교의 문은 열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N

— **마지막으로 절대 서울대를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동기들도 모두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었고, 힘든 수험생활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많은 과제로 고생도 하지만 대체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며 조금씩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입학하기 전까진 서울대학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대학교 학생 모두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다양한 활동도 즐기고 잘 놀 수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서울대를 꿈꾸는 자신을 믿어주고, 더 나아가 서울대 입학의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 이 학교에 입학해서 어떻게 인생을 꾸려 나갈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C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에 들어오기 위한 '정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서울대에 입학한 선배님들의 활동이나 독서, 내신 등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에 있는 여러 선배님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서 선배님들께서 서울대에 들어온 과정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서울대에 들어오기 위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고유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자신만의 관심사, 자신만의 장점, 그리고 자신만의 특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로, 즉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과 자질을 서울대 입학을 위해서가 아닌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탐구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다 보니 저는 서울대 입학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의예과 K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특히 더 학교생활을 즐기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내신도 챙겨야지, 교내대회 입상도 준비해야 하고, 독서는 빼놓을 수 없는데, 어떻게 즐기라는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고등학교 생활을 즐길 수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는 활동들에 더 의미를 두면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스펙을 만든답시고 한 활동들이 아니라 활동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한 활동들, 그런 것에 초점을 두면 고등학교 생활이 입시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번뿐인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십대의 마지막을 입시만을 위해서 보내게 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려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에, 면접에서, 여러분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학교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하지 못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영대학 K

저는 칭찬을 들을 때 '잘했다'라는 말보다 '정말 공을 들여서 열심히 했구나'라고 과정을 칭찬해 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후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상의 성적과 현재의 성취도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고교 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과거를 들여다봄으로써 학생의 노력한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노력들로 학생의 성실성과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을 평가하고, 현재 학생의 장점과 성취는 어떠하며, 미래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 잠재력 또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후배 여러분,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투적인 말이지만 무슨 일이든 즐겁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괴롭고 귀찮다고 여기지 말고, 나를 알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

하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는 배울 것이 참 많고, 배우는 플랫폼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하는 ‘나’는 누가 알려주나요?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며 여러분이 ‘나’를 찾아가는 귀중한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기쁨이 주는 그 달콤함을 맛보면 좋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H

— **마지막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그저 막막하기만 한 피곤한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자신의 색깔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독서, 세특, 봉사, 자기소개서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은 전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적성에 맞는 교과는 무엇인지, 흥미롭게 다가왔던 책은 무엇인지 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뿐만이 아니라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미래를 준비할지를 알려주는 좋은 등불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들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세상에서 하나뿐인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것을 서울대학교는 반드시 알아볼 것입니다.**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J

—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막막함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감이 들고 답답할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시는 감정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답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임하신 소중한 경험들이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올바른 길입니다.** 모소라는 대나무는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이 되면 매일 30cm 씩 자라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이것의 배경에는 4년 동안의 땅속에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내리는 인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준비과정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시간들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찬란한 미래를 위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된다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는 3년간의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 P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간혹 특별한 재능과 활동이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은 내신 성적 등급 점수가 높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평가는 학교 안에서 꾸준한 성취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이라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보여주기 식의 활동이 아니라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 인성을 길러주는 모둠 활동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깊이 있는 지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활동 안에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서울대학교의 전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Q. 수시모집에서 서류평가 방법이 전형마다 다른가요?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은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이 있습니다. 이 세 전형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형간 차이점은 지원 자격에 있으며, 서류평가 방법과 기준은 같습니다.

Q. 수시모집에서 여러 개의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있나요?

우리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모집단위에 도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 혹은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등에 함께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개 전형의 한 개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수시모집 지원 자격과 교과이수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이수기준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교육과정 내에서 폭넓은 교과를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가능한 지원 시점 이전까지 고른 교과목을 이수하여 고른 학업소양을 갖추기를 권장합니다.

Q.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를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야 하나요?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 2명이 지원할 수 있으며 추천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천 권한은 소속 고등학교장에게 있으며,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는 정시모집에서는 전혀 선발하지 않나요?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되고자 준비하는 학생은 전형별 선발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에 따라 수시모집만 실시하거나 일부 전형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정시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합격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악대학을 제외하고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Q. 서류평가에서 교과성적을 산출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재 내용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으며 성적을 산출하는 공식이나 보정점수를 주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Q. 성적이 꼭 향상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정해진 모습은 없습니다. 성적이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른 동일과목 수강자가 적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합니다. 즉, 선택한 과목의 수준과 수강자 구성, 인원수로 인하여 단순히 등급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받는데 유리한 과목만 이수하여 결과적으로 수치만 좋게 받으려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해서 석차등급이 다소 낮아지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과성적을 평가할 때 단순히 등급 수치만 고려하여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과 함께 수강한 학생들의 구성,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소수 학생이 이수한 과목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진학 목표를 고려하여 소수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노력을 보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모집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 성적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교과성취도(내신)의 3년간 이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 그 과목에서 성취한 등급, 원점수,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 표준편차,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공부한 내용과 그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여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지닌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Q. 동아리활동은 지원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내에서의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입니다. 학습동아리, 체육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여가동아리 등 지원자가 선택한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Q.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봉사활동의 형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배경, 과정 등 학생이 경험한 봉사활동의 내용을 고려합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은 종합평가의 일부분이며, 무조건 많이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Q.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했다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나요?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가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은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 이외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 더 알고 싶어서 한 독서활동, 방송 강좌 수강 등 학습 노력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 경험은 일차적으로는 학교 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를 소홀히 한 채 혼자 공부한 기록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각 제출서류마다 배점이 정해져 있고, 가장 높은 배점은 자기소개서 아닌가요?

서류별 배점은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서류마다 정해진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Q. 수시모집에 지원하는데 반드시 수능을 응시해야 하나요?

지역균형선발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 중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능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때 서울대학교가 정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모집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시모집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제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Q. 서류평가에서 수능 점수가 좋을수록 유리한가요?

수시모집에서 수능 점수는 최저학력기준으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서류평가, 면접, 실기평가(미술대학, 음악대학)를 통해 합격 대상자가 된 학생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등급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며 기준 등급보다 높은 수능 점수의 획득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Q.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단순 정답, 단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교과 지식과 기본개념 이해를 토대로 학생의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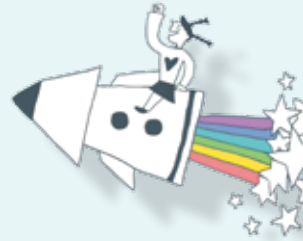
깊이 있게 사고할 줄 알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연습은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제풀이나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독서, 글쓰기, 토론, 발표,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면접은 제출서류를 내용을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확인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면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웹진 「아로리」에는 기출 제시문과 면접 우수자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로리 사용 설명서

입학본부 웹진(<http://snuarori.snu.ac.kr>)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폭넓고 다양하게 전달하여 서울대학교 입학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웹진입니다. ‘아로리’란 말의 뜻이 친구, 지인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친근하고 손쉽게 아로리를 이용하여 입학정보, 대학생활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학 안내	전형안내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입학사정관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서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모집단위에 지원했던 선배들의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입생들이 들려주는 면접 이야기	서울대학교 면접 우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료창고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자료와 입학본부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고교 생활	나의 고등학교 생활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인터뷰 내용으로 고등학교 생활담과 현재 대학 생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서울대학교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작성한 도서목록을 공개합니다. 모집단위별로 나누어 정리되어있으니 서울대학교 지원자들이 어떤 책을 많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계 이슈이슈!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수업 이야기와 우리 교육계의 쟁점 사안에 대한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대학 생활	관악로 1번지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서울대학교의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공 소개	서울대학교 단과대학과 소속 학과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메뉴입니다. 전공소개 동영상을 통해 생생한 전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전공, 나의 진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 엿보기	예비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교통, 기숙사, 동아리, 장학금, 도서관 이용법, 식당, 학생증 등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webzine 아로리
<http://snuarori.snu.ac.kr>

VERITAS LUX M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0동 4층 입학본부 (우)08826

전화 _ **02.880.5022 / 02.880.6974~6**

팩스 _ **02.873.5021**

※ 이 책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